

## 일반학생이 지각한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과 태도와의 관계\*

정 옥 연\*\*

본오중학교

박 재 국\*\*\*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김 은 라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

### 《 요 약 》

---

본 연구는 일반학생이 지각한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과 장애 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를 살펴보고,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소재한 공립중학교 중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내 일반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한 본 연구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학생이 지각한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의 전체 평균은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며, 하위 영역 중 학교환경 적응, 학교만족, 학교규칙준수의 영역의 평균은 높게 나타난 반면 친구 및 교사관계, 수업참여 영역은 낮게 나타났다. 둘째, 장애 중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는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일반학생이 지각한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과 일반학생의 태도 간에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학생의 인지적 태도와 행동적 태도가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학생에게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실천적 의지를 함양시킴으로써 태도를 변화시킨다면 장애 중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적응뿐만 아니라 나아가 통합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 장애중학생 학교적응력, 태도, 일반학생

---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moolgogy000@naver.com)

\*\*\* 교신저자(pjk006@hanmail.net)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통합교육의 확대로 일반학생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역시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특수교육에 있어 통합교육은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 다양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통합과 장애학생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나수현, 2009; 박영국, 2010). 이러한 학교 환경은 장애학생에게 있어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의 성공적인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인간관계 및 환경 적응이라는 중요한 경험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장애학생이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환경과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하며, 얼마나 만족스럽게 학교에 적응했느냐의 여부가 이후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통합을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경님, 2004; Bates & Vandenbelt, 2000; Chen, 2014).

일반적으로 학교적응력이란 학생이 학교에서의 대인관계와 학교의 제반 규칙과 질서를 자신의 욕구와 적절히 조절하고 효과적으로 수용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김용래, 2000; 이지수, 2006). 다시 말해 학교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조화롭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환경에 순응하거나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장애학생에게 있어 학교적응력 역시 건전한 생활습관과 대인관계형성 및 정서적 안정을 통해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써 통합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박영국, 2010; 이윤경, 2008).

하지만 박원경(2006)과 이해균(2007)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통합교육 환경 내에서 장애학생은 학교 환경에의 적응력이 떨어지고 교사 및 친구들로부터 거부되는 경향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일반학생들보다 학교 적응에 실제적인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장애학생 또한 의미 있게 수업에 참여하고, 변화하는 학교 환경에 적절하게 순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나수현, 박승희, 2009; Anna et al., 2014). 즉 통합교육이라는 환경에서 장애학생은 학교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또래집단에 수용되어야 하는 동시에 이 모든 과업을 완수하면서 학교에 적응해야 하므로 이는 장애학생에게 심리적, 정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김영주, 2007; 김지영, 2005; 나수현, 2008).

한편 장애학생의 학교적응력은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인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 학습의 전반적인 분위기 등 환경적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김자연, 2011; 노은희, 1997; 이지수, 2006;

Horne, 1985). 이는 통합교육 장면에서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적응은 장애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학습하는 일반학생들의 수용적인 분위기와 긍정적인 태도로부터 비롯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태도란 사회적 대상 및 상황과 관련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 감정적 자세 및 행동 경향의 안정적인 체계(김기흥, 2006; Cloerkes, 1997)로써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태도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일정한 조직구조의 개념이다(나은영, 1994; 박재국 외, 1997; 한규석, 2004). 이 때 인지적 태도란 어떤 대상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지각 및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며, 감정적 태도는 대상에 대한 개인의 좋고 싫음의 감정을 일컬으며, 행동적 태도는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하려는 의도 즉, 전반적으로 무언가를 하고자하는 경향을 뜻한다(박재국 외, 1997;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일반적으로 태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들 간에는 높은 일관성과 상관성이 존재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그 중의 어떤 한 가지가 특히 우세하거나 결핍될 수도 있다(이연경, 2003).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균형을 유지하게 되면 개인은 더욱 만족을 느끼는 반면 일관성이 없을 때는 방어적인 태도를 이루게 된다(나선희, 2002; 오유석, 2001; 이연경, 2003)다는 것이다. 더불어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이러한 태도 역시 인지, 지각 및 판단, 경험에 의하여 충분히 학습되어질 수 있는(김대수, 1993; Caroline, 2014)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통하여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용시킬 수 있는 신축성(한진숙, 2003; Adrian et al., 2014)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태도의 이러한 특성들을 종합하여 보면, 통합교육 장면에서 장애 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태도의 세 가지 요소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학습을 통해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장애학생의 학교 적응과 더불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인(김자연, 2011; Shimoda et al., 2014) 일반학생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라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김종삼, 2000; 오유석, 2001; 이영숙, 2011), 학년에 따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박순길, 전현선, 2003; 이혜숙, 2003; 최성규, 임병택, 2002). 통합교육 경험 기간 및 접촉경험에 따라 통합교육 경험 기간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결과(오유석, 2001; 이혜숙, 2003; 이은하, 2011)가 있는 반면, 통합교육 경험 기간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연구(김종삼, 2000)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학생의 태도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만 밝히는데 그치고 있어 일반학생의 실제적인 태도개선을 위해서는 태도의 세 가지 요소 즉,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태도(나은영, 1994; 박재국 외, 1997; 한규석,

2004)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학생의 태도가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임을 밝히고 있으나(김자연, 2011; Shimoda et al., 2014),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과 일반학생 태도의 세부적인 영역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과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 학교적응력과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와의 하위영역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일반학교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 프로그램 지원 및 탐색과 일반학생의 태도개선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학생이 지각한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 중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는 어떠한가?

셋째, 일반학생이 지각한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과 태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일반학생이 지각한 장애중학생의 학교적응력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소재 공립중학교 중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30개 학교의 통합 학급에 재학 중인 일반학생 각 10명, 총 300명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학교적응력과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3부를 제외한 287부(회수율 95.6%)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50.2%)과 여학생(49.8%)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년에서는 2학년이 가장 높은 비율(35.2%)을 차지하고 있었다. 통합학급 경험 기간에서는 1년 이상(33.1%)과 2년 이상(32.1%)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또래도우미 활동 여부는 84.7%가 교내 외 봉사활동 여부는 75.6%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87)

구분		n (%)
성별	남	144 (50.2)
	여	143 (49.8)
학년	1학년	88 (30.7)
	2학년	110 (35.2)
	3학년	98 (34.1)
통합학급 경험 기간	1년 이상	95 (33.1)
	2년 이상	92 (32.1)
	3년 이상	56 (19.5)
	4년 이상	24 (8.4)
	5년 이상	20 (7.0)
또래도우미 활동 여부	유	44 (15.3)
	무	243 (84.7)
교내 외 봉사활동 여부	유	70 (24.4)
	무	217 (75.6)

##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일반학생이 지각한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과 장애 중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 및 학교적응력과 태도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교적응력 척도와 일반학생의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 1) 학교적응력 척도

일반학생이 지각한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나수현(2008)이 개발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적응력 척도는 ‘학교만족’, ‘수업참여’, ‘학교규칙 준수’, ‘친구 및 교사 관계’ 그리고 ‘학교환경 적응’의 총 5개의 하위 영역에 포함되는 2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하위영역 중 ‘학교만족’은 자신이 느끼는 만족도로 응답하도록 하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타인이 지각한 만족도의 문항으로 재진술하여 구성하였다. 이후 전반적인 설문 문항을 특수교육 전공 교수 2명과 박사과정생 2명이 검토한 후 일반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적절성과 반응 용이도를 확인한 후 최종

설문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문항의 반응양식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는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반응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학교적응력 척도의 Cronbach- $\alpha$ 가 .85로 산출되어 연구 도구로써 사용되기에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적응력 설문지의 구체적인 구성과 신뢰도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학교적응력 설문지의 구성

하위 영역	문항 내용	문항수	Cronbach- $\alpha$
학교만족	1. 우리 학교를 좋아한다. 2. 공부시간을 재미있어 한다. 3. 학급의 친구들을 좋아한다. 4. 학교에 오는 것을 즐거워한다. 5. 학교 선생님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6. 학교선생님들은 장애학생에게 친절하다. 7. 수업 시간(교실) 외에 선생님을 만나면 반가워한다.	7	.91
수업참여	8. 수업 시간에 주어진 과제를 수행한다. 9. 수업 중 교사의 질문에 대답한다. 10. 교사가 내 준 숙제를 잘 해온다. 11. 수업 시간에 학습 태도가 좋다.	4	.78
학교규칙 준수	12. 학교나 학급의 규칙을 잘 지킨다. 13.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른다. 14. 학교에 지각을 하지 않는다. 15. 학교에 결석을 하지 않는다. 16. 복도나 계단에서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17. 급식실로 이동할 때나 화장실에서 차례를 지킨다. 18. 학급에서 함께 사용하는 물건을 소중히 사용한다. 19.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한다.	8	.78
친구 및 교사 관계	20. 학급 내 친구들과 사이좋게 어울린다. 21. 친구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관심을 표명한다. 22. 선생님에게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한다. 23. 선생님과 편안하게 이야기한다. 24. 학교에 좋아하는 특정 친구가 있다. 25.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6	.73
학교환경적응	26. 스스로 화장실 사용을 한다. 27. 자신의 교실을 잘 찾아온다. 28. 미술실이나 음악실 등의 특별한 이동을 잘 한다. 29. 학교 내 특정 장소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4	.78
전체		29	.85

## 2) 일반학생의 태도 척도

장애 중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재국(2008)과 홍성윤(2002)이 사용한 설문지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장애중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 척도는 ‘인지적 태도’, ‘감정적 태도’, ‘행동적 태도’의 3개 하위 영역에 포함되는 총 2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양식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 일 경우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인 경우 1점으로 반응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재구성한 설문지는 특수교육전공 교수 2명과 박사과정생 2명, 국어교사 1명이 검토하여 내용타당도를 높였으며, 이 후 일반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이해도와 반응 용이도를 검증한 후 최종 설문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도구의 Cronbach- $\alpha$ 는 .91로 비교적 높게 산출되어 연구 도구로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중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 설문지의 구체적인 구성과 신뢰도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장애중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 설문지 구성

하위 영역	문항내용	문항수	Cronbach- $\alpha$
인지적 요소	1. 장애학생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2. 장애학생은 나와 걸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친해지기가 힘들다.* 3. 장애학생도 일반학교에서 교육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장애학생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5. 장애학생도 학교생활을 다른 학생처럼 잘 할 수 있다. 6. 장애학생을 도울 수는 있지만 친구로서 친하게 사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7. 장애학생은 일반학생들과 어울리는데 있어서 소극적이다.* 8. 장애학생들도 일반인과 같은 일반적 직업을 가질 수 있다. 9. 장애학생은 의존적이어서 늘 도움을 주어야 한다.* 10. 장애학생은 자신의 장애로 인해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11. 장애학생은 자기고집이 강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1	.75
감정적 요소	12. 장애학생을 대하면 불쌍한 마음부터 든다.* 13. 장애학생 가까이 있으면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14. 장애학생 가까이 있으면 괜히 불편함을 느낀다.* 15. 장애학생과 대화할 때 혹시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다.* 16. 장애학생을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당혹스럽다.* 17. 장애학생과 하는 조별활동 등은 괜히 손해 보는 것 같아서 싫다.* 18. 내 자신이 사고로 장애인이 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9	.74

<표 3> 장애중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 설문지 구성 (계속)

하위 영역	문항내용	문항수	Cronbach - $\alpha$
감정적 요소	19. 장애학생 친구와 공공장소에 있으면 왠지 창피할 것 같다.* 20. 장애학생은 늘 슬픈 모습을 하고 있어서 가까이하기 싫다.*	9	.74
행동적 요소	21. 장애학생과 마음을 열고 많은 대화를 해보고 싶다. 22. 우리 반의 장애학생과 편견 없이 친구로 지낼 것이다. 23. 장애학생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다. 24. 장애학생을 만나면 부담 없이 말을 걸 것이다. 25. 장애학생과 이성 교제는 하고 싶지 않다.* 26. 장애학생 친구가 있다면 나의 친구라고 다른 학생들에게 떳떳하게 소개할 것이다. 27. 장애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28. 장애관련 행사에 스스로 참여하고 싶다. 29. 장애학생을 대할 때 장애학생의 불편함을 배려하여 편안함을 느끼게 할 것이다.	9	.91
전체		29	.91

\*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 3. 연구 절차

#### 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관련 선행 연구를 기초로 예비설문지를 작성하고, 일반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설문지 구성의 적절성, 이해도 및 문항 내용의 타당성, 검사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였다. 본 예비조사를 통하여 학교 적응력 척도 하위 영역인 ‘학교만족’ 과 ‘친구 및 교사관계’ 의 문항 중 ‘학교에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가 중복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교만족’ 의 영역에는 ‘학급의 친구들을 좋아 한다’ 로 ‘친구 및 교사관계’ 영역에는 ‘학교에 좋아하는 특정 친구가 있다’ 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13년 2월 ~ 3월에 걸쳐 2주 간 부산광역시 중학교 중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30학급을 선정하여 일반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실시하기 전 대상 기관의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

방법, 소요 시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후 동의를 얻고 대상자를 추천받았다. 이후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다시 본 연구의 목적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동의를 구한 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방과 후 본 연구자가 직접 조사대상자를 만나 자신의 학급에 소속된 장애학생에 대해 자신이 느낀 점을 기초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설문지는 제외하고 최종 287부를 연구 목적에 따라 분석하였다.

#### 4. 자료 처리

일반학생이 지각한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과 일반학생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 처리 및 분석을 하였다. 첫째, 일반학생이 지각한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과 일반학생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배경변인에 따른 학교적응력과 일반학생의 태도를 탐색하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일반학생이 지각한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과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일반학생이 지각한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

##### 1)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 하위영역별 특성

일반학생이 지각한 중학생의 학교적응력은 전체 평균 3.26, 표준편차는 .47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학교환경적응(3.78±.76), 학교만족(3.67±.88), 학교규칙준수(3.26±.68), 친구 및 교사관계(3.01±.68), 수업참여(2.55±.7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학생이 지각한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 5가지 하위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

(N=287)

하위영역	M	SD
학교만족	3.67	.88
수업참여	2.55	.76
학교규칙준수	3.26	.68
친구 및 교사관계	3.01	.68
학교환경적응	3.78	.76
전체	3.26	.47

## 2) 일반학생 배경변인에 따른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

일반학생이 지각한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을 일반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 학년( $F=7.35, p<.01$ ), 또래도우미 활동( $t=4.19, p<.001$ )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른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장애 중학생의 전체 학교적응력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위영역 중 학교규칙준수( $t=-2.59, p<.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반학생의 학년에 따른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7.35, p<.05$ ). 하위영역별로 학교만족영역에서는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업참여( $F=12.20, p<.001$ ), 학교규칙준수( $F=12.87, p<.001$ ), 친구 및 교사관계( $F=4.86, p<.01$ )와 학교환경적응( $F=5.24, p<.01$ )에서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일반학생의 학년에 따른 전체 학교적응력은 1학년보다 2학년과 3학년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학생의 통합학급 경험 기간에 따른 장애 중학생의 전체 학교적응력은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영역별로 학교만족( $F=2.52, p<.05$ )과 학교환경적응( $F=2.80, p<.05$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정 결과, 일반학생의 통합학급 경험 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학생의 또래도우미 활동 여부에 따른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 점수를 보면, 전체 학교적응력은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4.19, p<.001$ ). 또래도우미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은 평균 3.52( $SD=.49$ ), 또래도우미 활동 경험이 없는 집단은 평균 3.21( $SD=.45$ )로 또래도우미 경험이 없는 일반

학생보다 또래도우미 활동 경험이 있는 일반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반학생의 봉사활동 여부에 따른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장애 중학생의 전체 학교적응력은 봉사활동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수업참여( $t=2.44, p<.01$ ) 영역에서 봉사활동 경험 여부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봉사활동 경험 없는 일반학생보다 경험이 있는 일반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만족, 학교규칙준수, 친구 및 교사관계, 학교환경적응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일반학생 변인에 따른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 분석 결과 (N=287)

하위영역 변인(n)		학교만족		수업참여		학교규칙준수		친구 및 교사관계		학교환경적응		학교적응력	
		M(SD)	t/F	M(SD)	t/F	M(SD)	t/F	M(SD)	t/F	M(SD)	t/F	M(SD)	t/F
성별	남(144)	3.67(.89)	.003	2.48(.78)	-1.70	3.17(.73)	-2.59**	2.97(.80)	-.98	3.75(.810)	-.70	3.21(.49)	-1.79
	여(143)	3.67(.89)		2.63(.74)		3.37(.59)		3.05(.67)		3.82(.72)		3.31(.44)	
학년	1학년(88) <sup>a</sup>	3.76(1.01)	.70	2.24(.69)	12.20*** (b, c > a)	3.01(.61)	12.87*** (b, c > a)	2.82(.63)	4.86** (b, c > a)	3.70(.81)	5.24** (b, c a, c)	3.11(.42)	7.35** (b, c > a)
	2학년(101) <sup>b</sup>	3.62(.89)		2.64(.75)		3.48(.59)		3.08(.68)		3.98(.72)		3.36(.45)	
	3학년(98) <sup>c</sup>	3.67(.88)		2.75(.77)		3.28(.71)		3.10(.72)		3.66(.73)		3.29(.49)	
통합 학급 경험 기간	1년(95) <sup>a</sup>	3.52(.89)	2.52 <sup>*</sup>	2.62(.77)	2.03	3.25(.66)	.55	2.95(.71)	.94	3.61(.74)	2.80 <sup>*</sup>	3.19(.48)	1.01
	2년(92) <sup>b</sup>	3.59(.86)		2.64(.80)		3.31(.72)		3.12(.66)		3.84(.68)		3.30(.49)	
	3년(56) <sup>c</sup>	3.83(.86)		2.52(.71)		3.29(.55)		2.94(.66)		3.86(.73)		3.29(.38)	
	4년(24) <sup>d</sup>	3.82(1.02)		2.27(.70)		3.09(.86)		3.03(.73)		3.81(.98)		3.20(.58)	
	5년 이상 (20) <sup>d</sup>	4.06(.80)		2.28(.76)		3.33(.51)		2.95(.73)		4.15(.87)		3.26(.47)	
또래 도우미 활동	있음(44)	3.97(.86)	2.50 <sup>*</sup>	2.95(.70)	3.86***	3.40(.70)	1.42	3.29(.69)	3.02**	3.99(.76)	1.94	3.52(.49)	4.19** *
	없음(243)	3.61(.88)		2.48(.76)		3.25(.66)		2.96(.68)		3.75(.76)		3.21(.45)	
봉사 활동	있음(70)	3.68(.91)	.13	2.75(.82)	2.44**	3.36(.66)	1.30	3.11(.73)	1.52	3.83(.72)	.55	3.35(.51)	1.84
	없음(217)	3.66(.88)		2.49(.74)		3.24(.67)		2.97(.67)		3.77(.78)		3.23(.45)	

\* $p<.05$ , \*\* $p<.01$ , \*\*\* $p<.001$

## 2. 장애 중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

1) 장애 중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 하위영역별 특성

장애 중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는 전체 평균은 3.11, 표준편차는 .49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감정적 태도(3.23±.55), 인지적 태도(3.21±.55), 행동적 태도(2.90±.6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 중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장애 중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 (N=287)

하위영역	M	SD
인지적 태도	3.21	.55
감정적 태도	3.23	.55
행동적 태도	2.90	.67
전체	3.11	.49

2) 일반학생 배경변인에 따른 장애 중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

장애 중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를 배경변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일반학생의 전체 태도는 일반학생의 성별( $t=-2.73, p<.01$ ), 학년( $F=4.20, p<.05$ ), 또래도우미 활동( $t=3.71, p<.001$ ), 봉사활동( $t=3.38, p<.01$ )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른 장애 중학생에 대한 태도 점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반학생의 전체 태도는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t=-2.73, p<.01$ )가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인지적 태도( $t=-2.44, p<.05$ ), 감정적 태도 ( $t=-2.27, p<.05$ ), 행동적 태도( $t=-2.13, p<.05$ )로 태도 전체 영역에서 성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장애 학생에 대한 태도와 하위영역에 따른 태도가 전체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반학생의 학년에 따른 장애 중학생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학생의 학년에 따른 전체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 $F=4.20, p<.05$ )가 확인되었다. 태도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감정적 태도에서는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지적 태도( $F=3.61, p<.05$ )와 행동적 태도( $F=4.89, p<.01$ )에서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전체 태도는 1학년(3.10±.53)보다 2학년(3.31±.52)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의 하위영역인 인지적 태도와 감정적 태도 역시 1학년보다 2학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생의 통합학급 경험 기간에 따른 장애 중학생에 대한 태도는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학생의 또래도우미 활동 여부에 따른 장애 중학생에 대한 태도 점수의 차이를 보면, 또래도우미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은 평균 3.36(SD=.52), 또래도우미 활동 경험이 없는 집단은 평균 3.07(SD=.47)로 전체 태도는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3.71, p<.001$ ).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인지적 태도( $t=-2.78, p<.01$ ), 감정적 태도 ( $t=-2.95, p<.01$ ), 행동적 태도( $t=-3.43, p<.01$ )로 태도 전체 영역에서 또래도우미 활동 경험이 없는 일반학생보다 또래도우미 활동 경험이 있는 일반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반학생의 봉사활동 여부에 따른 장애 중학생에 대한 태도 점수의 차이를 보면 전체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어( $t=-3.38, p<.01$ ),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일반학생보다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일반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감정적 태도에서는 봉사활동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지적 태도( $t=-3.30, p<.01$ ), 행동적 태도( $t=-4.02, p<.001$ )에서는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이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장애중학생에 대한 태도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일반학생 변인에 따른 일반학생의 태도 분석 결과 (N=287)

변인(n)	하위영역	인지적 태도		감정적 태도		행동적 태도		태도	
		M(SD)	t/F	M(SD)	t/F	M(SD)	t/F	M(SD)	t/F
성별	남(144)	3.14(.56)	-2.44*	3.17(.53)	-2.27*	2.82(.64)	-2.13*	3.04(.48)	-2.73**
	여(143)	3.29(.52)		3.31(.55)		2.99(.69)		3.20(.49)	
학년	1학년(88) <sup>a</sup>	3.10(.53)	3.61* (b > a)	3.17(.51)	.92	2.72(.73)	4.89** (b > a)	3.00(.50)	4.20* (b > a)
	2학년(101) <sup>b</sup>	3.31(.52)		3.27(.54)		3.01(.59)		3.20(.47)	
	3학년(98) <sup>c</sup>	3.23(.57)		3.26(.58)		2.95(.66)		3.15(.49)	
통합 학급 경험 기간	1년(95)	3.20(.55)	.11	3.24(.54)	.06	2.94(.73)	.99	3.12(.53)	.28
	2년(92)	3.22(.52)		3.23(.59)		2.96(.58)		3.14(.45)	
	3년(56)	3.24(.42)		3.26(.45)		2.88(.50)		3.13(.33)	
	4년(24)	3.16(.76)		3.20(.60)		2.78(.77)		3.05(.64)	
	5년 이상(20)	3.23(.68)		3.22(.61)		2.68(.96)		3.04(.66)	
또래 도우미 활동	있음(44)	3.42(.62)	2.78**	3.46(.57)	2.95**	3.21(.59)	3.43**	3.36(.52)	3.71***
	없음(243)	3.18(.52)		3.20(.53)		2.85(.66)		3.07(.47)	
봉사 활동	있음(70)	3.40(.55)	.13	3.29(.54)	.910	3.17(.58)	4.02***	3.29(.44)	3.38**
	없음(217)	3.15(.88)		3.22(.55)		2.82(.67)		3.06(.49)	

\* $p<.05$ , \*\* $p<.01$ , \*\*\* $p<.001$

### 3. 일반학생이 지각한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과 일반학생의 태도와의 관계

일반학생이 지각한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과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r=.47, p<.001$ )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학교만족과 감정적 태도’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만족 영역과 인지적 태도, 행동적 태도, 전체 태도’는 상관계수가  $-.12 \sim -.14$ 로 유의수준 .05에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감정적 태도와 친구 및 교사관계, 학교환경적응’은 상관계수가 .17과 .19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약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이를 제외한 학교적응의 5가지 하위영역과 태도의 3가지 하위영역 간에는 다소 높은 정적상관( $r=.24 \sim .49, p<.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생이 지각한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과 일반학생의 장애 중학생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하위영역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일반학생이 지각한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과 일반학생의 태도와의 상관관계

구분	학교만족	수업참여	학교규칙 준수	친구 및 교사관계	학교환경 적응	학교적응
인지적 태도	-.14*	.37***	.49***	.42***	.41***	.46***
감정적 태도	-.02	.24***	.27***	.19**	.17**	.26***
행동적 태도	-.13*	.41***	.42***	.46***	.32***	.44***
태도	-.12*	.41***	.47***	.43***	.36***	.47***

\* $p<.05$ , \*\* $p<.01$ , \*\*\* $p<.001$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반학생이 지각하는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과 일반학생의 태도를 살펴보고,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과 일반학생의 태도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일반학교 통합교육 장면에서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 프로그램 지원 및 탐색과 일반학생의 태도개선의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도출된 연구 결과를 연구 문제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일반학생이 지각한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

일반학생이 지각한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에 대해 탐색한 결과, 학교적응력은 학교환경적응, 학교만족, 학교규칙준수, 친구 및 교사관계, 수업참여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환경적응과 학교만족은 높게 나타난 반면, 친구 및 교사관계와 수업참여는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장애 중학생은 통합교육 장면에서 친구 및 교사관계와 수업참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장애학생의 학교적응력 하위영역에서 수업참여(김자연, 2011; 김정연, 2007; 이신령, 박승희, 2007; 이해균, 2007)와 친구 및 교사관계(김정연, 2007; 나수현, 2008; 박영국, 2010, 박원경, 2006; 허희선, 박승희, 2011)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이는 통합학급 장면에서 우선적으로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수행수준에 적합한 수업참여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의미 있는 수업참여와 학급 내 수용적인 분위기를 통하여 장애학생의 어려움을 상쇄시킨다면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사 관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까지 연결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반학생 변인에 따른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은 1학년보다 2학년과 3학년이 더 높게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일반학생이 지각하는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또래도우미 활동 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히 학교적응력 하위영역 중 수업참여와 친구 및 교사관계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업참여와 친구 및 교사관계에서 나타나는 학교 적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 중학생에 대한 또래의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장애학생에 대한 유의미한 접촉경험이 일반학생의 태도를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김수빈, 2011; 김호일 외, 2003; 함금화, 2010; 허희선, 박승희, 2011)들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써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학생의 또래도우미 활동과 같은 직접적인 접촉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밖에 일반학생의 성별, 통합학급 경험 기간, 봉사활동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은 수업참여와 친구 및 교사관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일반학생의 학년에 따라서도 2학년과 3학년보다 1학년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일반학생의 또래도우미 활동 경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 중학생에게는 학급 내 수용적인 분위기와 교수적 수정을 통하여 의미 있는 수업참여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반학생에게는 또래도우미 활동과 같이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장애 중학생의 학교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2. 장애 중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

장애 중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 경향은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 영역별로 인지적 태도와 감정적 태도보다 행동적 태도가 낮게 나타나 장애 중학생에 대한 긍정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실천적 의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정적 태도가 낮게 나타난 박재국(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지만, 행동적 태도는 대상에 대하여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하려는 의도 즉, 전반적인 하고자 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박재국 외, 1997) 실제적인 접촉 경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경험과 의도를 배양해야함을 시사한다.

한편, 일반학생 변인에 따른 장애 중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는 성별에 따라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태도 전체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덜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박재국, 손상희, 2004)와 일치하지 않지만,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김종삼, 2000; 오유석, 2001; 이영숙, 2011; 이은하, 2011)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학년에 따른 장애 중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1학년보다 2학년과 3학년이 높게 나타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장애 중학생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일반학생의 태도가 고학년이 될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난 연구(박재국 외, 2006)와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중학생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이혜숙(2003)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반면, 통합학급 경험 기간에 따른 태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이은하, 2011; 이혜숙, 2003)와 불일치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결과는 통합교육 현장에서 단순히 물리적·시간적 통합만으로는 성공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김종삼(2000)과 오유석(2001), 이혜숙(2003)은 장애학생과의 접촉과 교류에 따라 일반학생의 태도가 수용적인 방향으로 변해 가지만, 아무런 교육적 조치 없는 단순한 접촉 경험은 부정적 태도를 지니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즉, 통합학급 경험 기간 기간인 양적인 측면보다 일반학생과 장애학생 간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과 활동 등의 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일반학생의 또래도우미 활동 여부와 봉사활동 경험 여부에 따른 장애 학생에 대한 태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도우미 활동 경험이 있는 일반학생의 태도는 또래도우미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장애학생에게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태도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봉사활동 경험 여부에 따른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역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또래도우미 활동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강성구, 2005; 허희선, 박승희,

2011)와 봉사활동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양홍식, 2004; 이은하, 2011)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장애 중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또래도우미 활동과 봉사활동 경험 등과 같은 직접적인 접촉 경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 중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는 중립적인 경향을 나타내며, 행동적인 태도와 인지적인 태도가 감정적인 태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라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일반학생의 학년에 따라서는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다소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또래도우미 활동과 장애학생 관련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일반학생들이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 중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 통한 생각과 지각 및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태도는 학습되어지는 것으로(김대수, 1993; Caroline, 2014) 적극적인 교육적 접근과 의도적인 긍정적 경험이 반복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학생들에게 단순한 접촉 경험보다는 직접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 등을 통해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장기에 걸친 경험이 계획되어 제공된다면 효과를 거둘 것이다.

### 3.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과 일반학생의 태도와의 관계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과 일반학생의 태도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 장면에서 장애 중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적응과 나아가 사회적 통합의 실현은 학급 내에서 함께 학습하고 생활하는 일반학생들의 수용적인 분위기와 긍정적인 태도로부터 비롯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과 일반학생 태도의 하위 영역별로 전체적으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학생의 인지적 태도와 행동적 태도가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학교만족 영역에서는 낮은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장애 중학생이 일반학생의 태도와 관계없이 교사와 친구, 학교 및 수업에 대한 관심과 만족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장애 중학생의 학교만족에는 일반학생의 태도 외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적상관이 나타난 학교적응력을 각각 하위영역 별로 살펴보면, 장애 중학생의 학교규칙 준수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태도와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규칙 준수는 장애 중학생이 학교와 학급 내에서 규칙과 질서,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자기 관리 및 자기의 행동을 통제하면서 학교생활전반에 일어나는 일들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이다(나수현, 2008). 따라서 장애 중학생이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원활하게

자기행동을 통제하여 학급 내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장애 중학생에 대한 일반학생들의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태도 등 전반적인 태도개선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 하위영역에서 수업참여와 친구 및 교사관계는 일반학생 태도의 인지적, 행동적 태도와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에 있어 수업참여와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므로 (김자연, 2011; 나수현, 2008; 박영국, 2010; 박원경, 2006; 이신령, 박승희, 2007; 이해균, 2007; 허희선, 박승희, 2011) 이러한 사실은 일반학생의 인지적, 행동적 태도의 긍정적 변화를 통하여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태도는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습득하거나 사회적 영향으로 변용될 수 있는 신축성을 포함하고 있다(한진숙, 2003). 따라서 일반학생이 장애 중학생에 대한 인지적 태도를 형성하기 위하여 올바른 이해를 통한 생각과 지각 및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태도는 학습되어지는 것임으로 적극적인 교육적 접근과 의도적인 긍정적 경험을 반복적으로 제공하여 행동적 태도를 형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학생들에게 단순한 접촉 경험보다는 직접적이며, 반복적인 의미 있는 활동 등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제공된다면 태도개선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 이처럼 통합교육 환경에서 일반학생의 행동적 태도와 인지적 태도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면 장애 중학생의 수업참여와 친구 및 교사관계, 학교규칙 준수 등 성공적인 학교 적응에 필요한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학생이 지각한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은 학교환경 적응, 학교만족, 학교규칙준수는 높게 나타난 반면 친구 및 교사관계, 수업참여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급 내 수용적인 분위기와 교수적 수정을 통하여 의미 있는 수업참여를 촉진하면 장애학생의 어려움을 상쇄시켜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사 관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까지 연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애 중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는 감정적 태도, 인지적 태도, 행동적 태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일반학생이 지각한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과 일반학생의 태도 간에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학생의 인지적 태도와 행동적 태도가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장애 중학생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위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일반학생이 인지적으로 왜곡되지 않은 생각을 정립하고, 지각 및 판단을 도와야 할 것이며, 또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의도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천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일반학생의 태도가 변화한다면 장애 중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적응뿐만 아니라 나아가 통합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학생이 지각한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과 일반학생의 태도는 부산광역시 소재한 공립중학교 중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내 일반학생 287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전체 장애 중학생과 일반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변인에 따라 집단의 표본 수의 차이가 많이 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수와 지역을 확대하고 표본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비장애학생이 지각하는 장애학생의 학교적응력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장애학생이 체감하는 학교적응력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장애학생 본인이 느끼는 학교적응력을 조사함으로써 두 집단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학생의 학교적응력과 일반학생의 태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초-중-고 학교급간의 발달단계에 따른 학교적응력을 살펴보고,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긍정적인 태도 함양을 위한 종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하여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력과 일반학생의 태도 간의 관계가 확인되었으므로, 결과에 따른 장애 중학생의 학교적응지원 프로그램과 일반학생의 태도개선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성구 (2005). 생활도우미 활동이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연구**, 12(2), 133-160.
- 김기홍 (2006). 장애아(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 부산·경남 지역 소재 대학교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연구**, 13(1), 27-48.
- 김대수 (1993). **태도형성론**. 대구: 우신출판사.
- 김수빈 (2011). 통합교육 경험과 장애인 접촉 경험이 일반 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주 (2007). 가족 탄력성이 초등학교에 통합된 장애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김용래 (2000). 학교학습동기척도와 학교적응척도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분석. **교육연구논총**, 17, 3-37.
- 김자연 (2011).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본 장애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 김정연 (2007). 초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통합학급 교사행동지각과 학교생활적응.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종삼 (2000). 통합교육 경험, 학년, 성별에 따른 일반아동의 장애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태도.

- 석사학위 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지영 (2005). 자기주장훈련이 경도정신지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도,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김호일, 박화석, 이인경 (2003).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 활동이 비장애 학생의 장애에 대한 태도와 대인 및 사회적 책임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1(2), 83-99.
- 나선희 (2002). 중학교 재량활동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통한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변화.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나수현 (2008).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이 지원 프로그램이 장애학생의 중학교 초기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나수현 (2009). 장애학생의 일반중학교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5(4), 117-136.
- 나수현, 박승희 (2009).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 지원 프로그램이 장애학생의 중학교 학교적응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3(44), 85-109.
- 나은영 (1994). 태도 및 태도변화 연구의 최근 동향 : 1985-1994.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8(2), 3-33.
- 노은희 (1997). 장애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순길, 전현선 (2003). 통합교육 환경에서 지체부자유아에 대한 또래아동의 인식태도. **지체부자유아교육**, 42, 121-137.
- 박영국 (2010). 일반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17(1), 21-42.
- 박원경 (2006). 학습장애 중학생과 일반 중학생의 불안, 우울정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박재국 (2008). 장애대학생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특수아동교육연구**, 10(4), 109-125.
- 박재국, 강수균, 中司利一 (1997). 지체부자유아의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와 대학생의 태도. **난청과 언어장애**, 20(1), 49-70.
- 박재국, 강영심, 안성우, 김자경, 황순영 (2006). 초, 중등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비교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8(2), 1-25.
- 박재국, 손상희 (2004). 지체부자유아에 대한 초·중등학생의 태도. **지체부자유아교육**, 44, 155-181.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교육학 용어 사전**. 서울: 하우동설.
- 오유석 (2001). 통합교육 경험이 초등학생의 장애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이경남 (2004).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신령, 박승희 (2007). 일반중학교에 통합된 지적장애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사회성 기술: 일반교사와 동료학생의 평정. **정서·행동장애연구**, 23(3), 233-263.
- 이연경 (2003). 장애수용 프로그램이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영숙 (2011). 통합교육에서 일반 청소년의 장애 청소년 수용태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영신학대학교 상담복지대학원.
- 이윤경 (2008).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의 인식과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은하 (2011). 장애 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통합교육태도 분석.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지수 (2006). **장애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한 학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과주: 한국학술정보(주).
- 이해균 (2007). 시각장애학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관계.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1), 133-152.
- 이혜숙 (2003). 통합교육상황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중학생의 태도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최성규, 임병택 (2002). 일반 초등학교 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수용태도 상관관계분석. **특수아동연구**, 4(1), 97-119.
- 한규석 (2004).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진숙 (2003). 일반계 고등학생의 특성에 따른 통합 교육 수용 태도.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함금화 (2010). 중학교와 특수학교의 자매결연을 통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일반중학생들의 장애이해 태도와 인식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허희선, 박승희 (2011). 학급차원의 또래도우미 활동 프로그램이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과의 친구관계와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 10(1), 155-186.
- 홍성윤 (2002). 청소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Adrian, T., Edvin, D. V., Andrea, D., & Robert, B. (2014). Implicit association tests of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82(2), 184-204.
- Anna, W. G., Suzanne, S., & Margaret, R. (2014). The association between violence exposure and aggression and anxiety, the role fo peer relationships in adapta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4(3), 311-338.
- Bates, L. L., & Vandenbelt, M. (2000). *Factors related to social competence in elementary school among children of adolescent mothe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s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in New Oreldans, LA.
- Caroline, E. G. (2014).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s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oes direct contact make a difference?* Student research papers, Georgia Southern University.
- Chen, L. J. (2014). Strucrual equation modeling for studying adaptation of the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inclusive junior high schools. *World Journal of Education*, 4(1), 11-19.
- Cloerkes, G. (1997). *Soziologie der Behinderten. Eine Einfuehrung*. Heidelberg.

- Horne M. D. (1985). *Attitudes toward handicapped students: professional, peer, and parent reaction*.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himoda, Y., Ishizu, K., Kashimura, M., & Shinrigaku, K. (2014). Relationship between self-evaluation of their emotions and subjective adaptation to school among junior high school students. *The Japanese Journal of Psychology*, 84(6), 576-584.

##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the School Adapt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 Attitude of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Jung, Ok-Yeon**

Bono Middle School

**Park, Jae-Kook**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Special Education

**Kim, Eun-Ra**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Special Education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school adapt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 attitudes of middle school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in the scenes of inclusive education. Also its purpose was to investigate relations between school adapt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attitudes of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To these ends, 287 middle school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completed questionnaires, and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school adapt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was in the average level,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teachers were low along with their participation in lessons. Second, the attitudes of common students toward students with disabilities tended to be neutral with their behavioral and cognitive attitudes scoring low points. Finally,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school adapt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 attitudes of common students. There were especially close correlations between the school adapt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 cognitive and behavioral attitudes of common students. Based on these results, it will be possible to facilitate the school adapt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achieve the given goal of inclusive education by improving positive attitudes of non-disabled students.

**Key Words** : school adaptation, attitude,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논문 접수: 2014. 08. 05 심사 시작: 2014. 08. 13 게재 확정: 2014. 09. 20